

여수 학생들, 친환경 급식 무상으로 먹는다

여수시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중·고 무상급식' 및 '친환경식재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어린이집·유치원에 친환경식재료를 집중 지원해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관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초·중·고 무상급식' 사업으로 시비 65억여 원을 포함 총 146억여 원을 투입, 특수학교를 포함해 관내 초·중·고 95개교에 식품

초·중·고·특수 총 95개교 대상 146억 투입해 운영비 등 지원 사업유치원에 식재료 부담분도 건강증진 도모 및 농가 소득 ↑

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친환경식재료 지원'은 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을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 농산물과 Non-GMO식품 대체 시 구입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시비 35억여 원을 포함 총 65억여 원으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278개교가 대상이며 학교급식센터와 위탁계약으로 현물로 공급한다.

사업유치원이 병설유치원과 달리 연간 60일 이상 방학을 실시하지 않는 현실 반영을 반영,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사업유치원과 체육시설로 인가된 YMCA아기스포츠타운에도 친환경식재료 부담분을 지원한다.

여수시는 이러한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통해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증진 도모뿐 아니라 관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학교 급식관계자 총 1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이순신광장 야외무대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

여수시는 중앙동 이순신광장 야외무대에 '스마트 그늘막·쉼터'를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 그늘막'은 사물인터넷(IOT)과 태양광 기술을 접목해 날씨에 따라 스스로 펴고 접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이 필요 없어, 갑작스러운 기상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태양광 패널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전기요금 부담 또한 없어 관리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편의 시설이다.

그간 이순신광장은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나 햇볕이 강한 날은 이용객

들이 그늘에서 쉼만한 장소가 없어 불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순신광장은 지하 주차장 건물 구조로 지상 시설물 설치에 제한이 많았지만, 이번 스마트 그늘막 설치로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이순신광장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잠시라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광장을 찾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시전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 회원 20여 명이 9일 장도와 웅천친수공원 일대 해안가를 중심으로 청결활동을 펼쳤다.

여수시 제공

부처님 오신날 연등 점등... 내달 9일까지 불 밝혀

여수시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난 8일 시청 로터리 인근에서 연등 점등 행사를 열었다.(사진)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정기명 시장과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여수시 사업연합회와 불자 등 약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했다.

여수시는 시청 앞 로터리와 여서동 로터리 2개소에 한지로 제작된 아기부처와 용의 모양을 한 연등을 설치했다.

연등은 2024년도 봉축표어인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글귀도 담겼으며, 오는 6월9일까지 밝혀진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불을 밝혀지게 되는 연등의 환한 불빛과 같이 부처님의 자비가 온 시민의 마음속에 꽃피우기를 기원드린다"며 "시민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한 여수·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골목길에 로고젝터 확대 설치

여성친화도시 여수시가 범죄취약지역에 솔라표지병과 로고젝터를 확대 설치하며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에 힘쓰고 있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광무동, 학동, 여서동 뒷골목 및 원룸촌 일대 등 3개소에 솔라표지병 112개와 로고젝터 3대를 추가 설치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어두운 골목길,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에 밤에 빛을 내는 바닥조명인 솔라표지병과 바닥에 특정 로고나 문구를 투영해 주는 LED장치인 로고젝터를 설치하고 있다.

야간에 조도를 개선해 통행자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설치 지역은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여수경찰서 범죄예방진단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지난해까지 원룸 밀집지역인 미평동과 어두운 골목길이 많은 부영여고 일대에 여성안심 귀갓길을 조성했으며, 지속적인 유지보수 작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여수시는 여성안심지킴이집(47개소), 안심벨(49개), 여성안심콜센터(1899-2012), 여성안심택배함(5개소), 여성안심귀갓길 안내도(2개소) 사업 등 7개의 여성안심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서강동·시전동, 르네상스 다함께 5대 실천 시민운동

웅천친수공원 등 청결 활동

여수시 시전동, 서강동에서 지난 7일과 8일 여수 르네상스 다함께 5대 실천 시민운동을 추진했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시전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회장 정광조, 회장 이은순) 회원 20여 명이 장도와 웅천친수공원

일대 해안가를 중심으로 청결활동을 펼쳤다.

청결활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여수시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키 위함으로 회원들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수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8일에는 서강동 실천본부가 서교동로터리 일원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COP33 유치를 위한 시민홍보 캠페인을 펼치며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었으며, 생활폐기물 배출 취약지를 정비해 통해 아름다운 여수시 가꾸기에도 힘썼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MZ 공무원, 시정 홍보 '눈길'



여수시 MZ세대 공무원들이 프로그램 녹화를 마치고 아나운서와 사진을 찍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의 MZ세대 공무원들이 여수시 홍보를 위해 방송에 직접 출연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여수시 소속 MZ 공무원 3명이 10일 방송 예정인 지방자치 TV '우리동네 너튜브' 여수시 편에 출연해 여수시의 다양한 정보들을 홍보한다.

이들은 △여수시 공식 유튜브 '여수이야기' 콘텐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여수시 대표 축제 등에 대해 토크 튀고 재미있는 토크로 소개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무원 출연진들과 진행 아나운서의 화려한 케미로 여수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등 다양한 매

'우리동네 너튜브' 직접 출연 세계섬박람회·대표 축제 등 소개

력을 폭풍 발산했다"며 "재치 있는 입담으로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에 개설된 여수시 유튜브(여수이야기)는 특히 소통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민선8기부터 시정을 직접 체험하고 알리는 '김PD의 대행사', 관광·문화 등을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으로 알리는 '숏폼' 등을 선보이며 구독자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8년 연속 수상하며 소통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튜브 여수이야기 활성화를 위해 '60초로 즐기는 여수' 숏폼 공모전을 추진하며 시청정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동네 너튜브, 여수시 편'은 10일 금요일 오후 5시30분부터 지방자치 TV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